원자력안전위원회 보도자료

보도시점 2025. 11. 21.(금) 16:00 (2025. 11. 22.(토) 조간) 배포 2025. 11. 21.(금) 10:00

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하고 신속한 처분 위해 원안위와 발생기관 한자리에 모여

원안위, 방사성폐기물 발생·관리 기관과 '원자력안전라운드테이블' 개최
방사성폐기물 현안 공유 및 현장 목소리 청취

원자력안전위원회(위원장 최원호, 이하 원안위)는 21일(금) 대전 유성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(KINS) 대회의실에서 **방사성폐기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처분 방안을 논의**하기 위해 **방사성폐기물 발생 및 관리 기관과 함께 '원자력안전라운드테이블'**을 개최하였다.

< 원자력 안전 라운드테이블(11.21.) 개요 >

◆**(일시/장소)** '25.11.21.(금) 14:00~16:00 /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대회의실(대전 유성구)

◆**(참석)** 원안위,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, 방사성폐기물 발생·관리 기관*

* 한국수력원자력(주), 한전원자력연료(주), 한국원자력환경공단, 한국원자력연구원

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올해 들어 여섯 번째로 개최되는 행사로, 최근 **고리 1호기 해체가 본격화되고,** 한국원자력환경공단(KORAD)의 방사성폐기물 **2단계 처분시설이 2026년부터 운영될 예정인 점을 고려하여,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해도**를 높이고 관계기관의 **애로사항**과 **현장의 목소리**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.

이날 회의에서 한국수력원자력㈜, 한전원자력연료㈜,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**방사성폐기물 발생 기관**은 각 기관이 추진 중인 **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저장·처리 노력을 공유**하고, 현재 시설에 저장 중인 **방사성폐기물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처분을 위한 계획을 설명**하였다.

기관들은 특히, 향후 고리 1호기 해체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많은 양의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, **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규제체계가 중요**하다고 강조하면서, 이와 관련한 **원안위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을 요청**하였다.

아울러, 오랜 기간 방사성폐기물 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장에서 느껴온 **제도·절차상의 애로사항**과 보다 **합리적인 규제 이행을 위해 필요한 규제 개선 과제**에 대해서도 **심도 있는 논의**가 이루어졌다.

최원호 위원장은 **"고리 1호기 해체 본격화**는 우리나라 **방사성폐기물 관리 체계**가 **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는 중요한 전환점"**이라고 평가하면서, **"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처분**은 **원자력 이용의 마지막 단계**이자, 그 영향이 우리 **후손 대대로 이어지는 매우 중요한 과제**인 만큼, **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**해달라"라고 당부하였다.

또한, **최원호 위원장**은 "원안위는 **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**하여 **안전하고 신속한 방사성폐기물 처리와 관리**가 가능하도록 **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을 조성**해 나가겠다"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방사선방재국 방사성폐기물안전과	책임자	과 장	채희연 (02-397-7373)
		담당자	서기관	송영동 (02-397-7360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